

“행복은 내 마음 안 있다”



어 있었어. 타인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업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외부에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풀리지. 누구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업중생(共業衆生)이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안고 나가야 합니다. 업은 자신만의 업이 아니며 타인의 업이 곧 나의 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지은 업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때문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해요.”

집착분명 천지야 방내진찰 무비어(執即分明天地也 方乃塵刹 無非我)
하늘과 땅이 분명하다고 집착하지만 놓아버리면 티끌 하나까지도 나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은 방하착(放下着)하라는 겁니다. 놓아버리게 되면 하늘은 그냥 하늘이고 땅은 그냥 땅에 지나지 않으니 일체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사상입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티끌 하나라도 나 아닌 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모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어요? 남을 원망하고 쓸데없는 곳에 화를 품는 것도 죄업 짓는 것이니 그냥 ‘탁’ 하고 놓아버려야 해요. 놓아버리면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이 나 아닌 것이 없을 터인데...”

도영 스님은 당신은 전생부터 불교와 지중환연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루는 백양사에서 탁발 나온 스님이 있었는데 어린 눈에 참으

로 훌륭해 보이더라.

“스님이 오십호 정도 되는 마을을 집집마다 들러서 탁발을 하시는데 그때 목탁소리와 염불소리가 하루 종일 끝까지 따라다녔지. 그때 어린 마음에 나도 커면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했어.”

도영 스님은 목탁소리, 염불소리가 낮설지 않고 편하게 다가온 것은 다 전생에 불연이 깊기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환한 웃음을 짓는다. 금산사로 출가한 도영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무섭기로 소문난 금오 스님으로부터 야단맞은 일은 없었는지 물었더니 머리 깎은 지 2년 남짓 지났을 때의 일을 들려주었다.

“불교 평화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통합종단이 등장한 직후인데, 대선사인 금오 스님은 참선 중심의 수행도량으로 불교가 재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이였어. 정화를 하긴 했는데 스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금산사 대중 스님 서른 명을 비롯하여 여타 지역의 스님들을 이끌고 서울 조계사로 올라가는 길이었지. 그때 나는 누군가 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슬며시 뒤로 빠져나와 금산사로 돌아왔지. 그런데 금오 스님께서 내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이십 리 길을 도로 내쳐 오신거야. ‘도영이 이놈 잡히면 때려죽인다’며 업포까지 놓았으니 모두 가슴을 졸였지. 금오 스님의 버럭같은 소리에 겁에 질려 있는데 어디선가 대중 스님 한 분이 달려와서 장삼을 건네면서 ‘장삼 가지러 갔다고 말하고 참회해’라고 일러주시는 거야. 금오 스님을 모시면서 수행자로서 살아야 할 많은 것을 배웠지.”

도영 스님이 이곳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아왔을 때만 해도 쇠락한 고찰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십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송광사는 전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만큼 그 세가 커졌고 활기 넘친다. 이곳 사람들은 ‘전주의 정서와 문화를 바꾸어놓았다’고 말한다. 사람이 단순히 예배하는 공간이나 박재된 문화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스님은 소임을 맡자마자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대중전과 마주하는 곳에 세심정(洗心亭)을 세우는 등 공원처럼 가꾸어서 누구나 오고 싶은 아름다운 사찰로 바꾸어놓았다.

작년에는 사찰 바로 옆에 오전 쉼터가 되는 백련지(白蓮池)를 조성했는데, 이 또한 사찰을 지역의 문화공간과 마음의 쉼터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도영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는 변함없지만 그 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졌기에 어느 곳에서 어떤 소임을 맡더라도 불교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또한 어느 세기보다 물질의 풍요를 한껏 누리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서 파생되어 나오는 병폐가 심각함을 스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보살의 눈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는 스님의 통찰력에 감탄할 뿐이다. 오로지 전법에만 열을 쏟았다는 보조국사 제정 스님의 후신이 아닌지 모르겠다.

스님의 파스란 눈빛과 햇빛 그리고 빗길과 바람이 도와 송광사 일대는 몇 달 후면 하얀 연꽃 향기로 가득 하겠지. 바람 한 줄기가 그 연꽃 향기를 데려다 주리라.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7. 벌교포교당 주지 발롱스님

송광사 발롱 스님은 큰법당 부전으로 30년을 넘게 지낸 스님이다. 코가 찌그러지고 귀가 짝 귀로 생겨 마을에서는 ‘짜귀’로 별명이 붙었는데, 절에 와서는 ‘복귀’로 불려지게 되었다. 나면서부터 집안이 어려워, “내가 복이 없어 그런가 보다. 절에 가서 좋은 일하여 복이나 지어라”하고 송광사 스님들께 부탁드렸다.

절에 와서는 물 길고, 나무 들이고, 불 때는 일을 주로 하다가 차 끓이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관음전에서 성공 스님이 불공을 드리면 그 옆에서 차를 달이면서 <천수경> <반야심경>으로부터 유체, 청사, 축원까지 들은 데로 다 외웠기 때문에, 그 때가 아주 복된 귀라 하여 ‘복귀’라 부르게 되었다.

성공 스님이 어디를 나가실 때 러가 골고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므로 출가 20년이 되었음에도 ‘복명’이 바뀌었다. 내가 그 스님 나이 30살에 만나 불전의식을 그분에게 배웠는데,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정구업진언이 정구업진언이지 무엇이냐. 잔소리 하지 말고 정구업진언을 계속해서 읽다보면 나처럼 말은 못해도 속이 훤히 터질 때가 있으니 무조건 외워. 무조건 외우면 복이 오네.”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 무조건 외우고 열심히 읽었다. 그런데 스님 나이 서른세 살이 되었을 때 군대에 가게 되었다.

“나는 가고 싶지 않는데,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절 일도

법당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당시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상좌를 결혼시켜 그 며느리로 하여금 뉘레주인이 되게 하기도 하고 농작 일을 맡겨 농사를 짓게 하기도 하였다. 스님께서서는 30이 넘도록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속가 삼촌 되는 스님이 결혼할 것을 종용하였다.

“저 같은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처님은 무불통지(無不通知)라. 부처님께 부탁드리면 좋은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하루는 벌교에서 어떤 보살님이 불공을 왔다.

“무슨 불공입니까?”

“길례(吉禮) 불공입니다.”

“가족 명단을 불러 보십시오.”

“우린 두 사람 뿐이기에 때문에 외동 딸 하나를 시집 잘 보내 사

한번 들으면 들은대로 다외워 ‘복귀’ ‘송광사의 새 도인’ 명성

는 소리와 발음이 거의 같으므로 발롱 스님께 부탁하여 기도를 드리게 하고 축원까지 하자 10년 후에는 대중스님들이 의논하여 스님을 큰법당 부전을 하게 되었다.

신도들이 오면, “나는 글을 잘 쓸 줄 몰라 축원방을 쓰지 못하니 식구대로 그 명단을 불러주시면 빼지 않고 축원하겠습니다”하고 열 명, 스무 명 되는 가족들 명단을 귀를 세우고 듣고 있다가 불공 드리고 축원할 때는 생일 생사까지도 모조리 외워 축원했다. 때문에 ‘송광사에 새 도인이 났다’고 하여 불공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발롱 스님만 찾았다.

그 때는 세상이 어려울 때라 양발 한 켤레, 수건 하나 얻어 쓰기가 힘들었는데, 불공을 잘 하니 수건, 양발, 버선 같은 것을 많이 사와 모든 대중이 거의 발롱 스님에게서 타서 쓸 정도였다. 그 뒤 또 남은 것을 가지고 마을에 내

봐쁘지만 나라 일이 더 급하니 딱 석 달만 가서 근무하고 오겠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법당일을 내가 맡게 되고, 3개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오는 날 텔레비데 들어왔다.

“아니, 발롱 스님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십니까?”

“나라 덕분에 제주도 구경하고, 훈련도 실컷 했네. 비오는 날은 바깥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막사에 앉아 총 소리를 하라 하여 청소한 뒤 잘 되었는데 시험하기 위해 발을 뺏고 발가락에 대고 총을 쏘았는데, 아, 아니, 그 속에 총알이 들어 있었던지 발가락 하나가 날아가 버렸지 뭐야. 대대장이 오더니, ‘너 같은 놈 데리고 있다가는 사람 죽이겠다’하고 의무대에 가서 치료하러더니, 그만 병가제대를 해줘서 왔어. 우리 부처님 영험하시지. 내 말씀은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니까”하고 오체투지를 했다. 그 뒤로 스님은 얼마 있다가 다시 큰

위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공 잘 드릴 테니 열심히 발원하십시오.”

하고 불공을 다 마친 뒤 부처님을 보고 말씀하였다.

“이 사람의 딸은 바로 저희 것입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튿 날 집에 가서 꿈을 꾸니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였다.

“송광사 발롱 스님과 결혼해서 살면 잘 살 것이다.”

그래서 바로 택시를 타고 송광사 금당 주지스님께 와서 물으니, “어제 불공 드린 사람이 발롱 스님입니다”하여, 주지스님이 주례를 서서 결혼시켜 벌교포교당 주지가 되었다. 벌교포교당은 6·25한국전쟁 때 반란군들이 사무실로 써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새롭게 단장하여 낫에는 절 일 보고 밤에는 집에 와서 일을 하게 하여 벌교에서는 제일 큰 이불가게를 운영하며 부자로 잘 살았다.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대구 정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조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절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전등

중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